

해인사 선방 1200년 만에 첫 개방

대장경 특별전, 아트프로젝트 등 초조대장경 기념 문화행사 한창

대장경은 부처님 말씀을 담은 것으로, 지혜의 그릇이라고도 불린다. 초조대장경 조성 천년을 기념해 대장경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린다. 또, 대장경을 소장하고 있는 해인사에서는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의 일환으로 현대미술과 만나는 행사가 시작된다.

대장경과 현대미술이 만났을 때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는 9월 23일~11월 6일 '통(通)'을 주제로 2011 해인아트 프로젝트를 개최한다.

행사는 대장경 조성 1000년을 기념하는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의 특별행사이자, 고려시대 1011년, 전쟁의 역경을 호국신념으로 이겨내고자 시작했던 대장경 조성을 현대미술과 접목한 행사이다.

전시주제인 통(通)은 천년의 시간 동안 대장경판을 지켜준 가야산 바람의 '통'과 불변고정적 실체가 없다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모티브로 >공간 >만물 >사상으로 나누어 기획됐다. 이를 위해 10여 개국 34명의 아티스트들이 참가해 현대예술의 경계 넘기가 보여주는 새로운 문화간 소통을 통해, 다른 문화간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 주려 나선다.

동·서양 미술사를 막론하고 전례 없는 형태와 스케일로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야외 조각전과 성보박물관 국제전, 국제화

전 등이 펼쳐진다.

주 전시관인 성보박물관 국제전 '만물의 통'에서는 선사상에 영향을 받은 빌 비올라(Bill Viola)의 비디오 작품과 장후안(Zhang Huan)의 20여 톤의 향의 재로 조성한 '재 불타(Ash Buddha)', 중국 개념미술의 선구자 쉬 빙(Xu Bing, 베이징 예술대학 부총장)의 '천서(A book from the sky)' 등 해인사의 역사·문화·정신을 상징하는 작품들이 전시된다.

전시를 계기로 해인사는 한국 불교박물관의 목적과 방향성을 재고하고, 불교문화의 현대 예술작품 소장을 통해 해인사 성보박물관이 독창적인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인사 경내의 가야산 탐방로를 따라서는 야외 곳곳에 설치된 조형물들을 만날 수 있다. 해인사의 역사성과 장소 특성을 반영한 야외조각전 '공간의 통'이다. 일주 지나 해인사 중심 경내에서는 구광루 국제회화전 '사고의 통'이 펼쳐진다. 국제회화전에서는 전쟁 기아 환경 인종차별 국가 종교 등과 같은 세계 공통의 문제들을 세계 각국 출신의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표현한다.

행사 개막을 하루 앞둔 22일 열리는 국제포럼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체, 언어 그리고 정신'을 주제로 서로 다른 문화와 전문분야들이 통하는 근원적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만성규 작, '부처의 소리'

개막일인 23일에는 개막식 설치작품으로 김아타의 '얼음불상'이 전시된다. 얼음 소재의 불상은 얼음이 녹는 2-3일간 관람이 가능하다.

24일은 해인사가 지정한 '해인아트데이'이다. 이날은 1200년 전 개산한 해인사가 처음으로 선원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날이다. 선방에서의 선체합은 물론, 전국 강원 법고 대회 등이 개최된다. 저녁에는 대적광전 앞 탐마당에서 복합·실험적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특히 여러 장르의 공연이 유기적으로 연가돼 하나의 곡인 '해인삼매'를 공연할 행사에서는 해인사

스님들의 동참이 눈에 띈다. 주지 선각 스님은 "행사는 대장경의 비폭력적이면서 독창적인 화합 정신을 이어 받아 창의적 소통을 하고자 했다"며 "서로 다른 문화간의 창의적 소통을 통해 언어 사상 인종 국가의 경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형태의 화합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해인사는 해인아트프로젝트를 올해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매년 4-5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지속성 행사로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해인사를 예술작가들에게 제공하는 해인아트스테이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055)934-3173

천년의 지혜 담은 그릇 한눈에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흥선)은 9월 20일부터 '천년의 지혜 천년의 그릇'을 주제로 2011년 초조대장경 천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했다. 박물관이 고려대장경연구소, 동국대도서관과 공동주관해 개최한 행사는 11월 12일까지 계속된다.

전시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초조본 <신찬일체경원품차록>을 비롯한 국보·보물로 지정된 초조대장경 인출본 다수를 비롯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인사 장경판전에 소장된 재조대장경 목판인 <고려국신조대장경정별목> 목판, <대각국사문집> 목판 등 국보 7점 보물 31점을 포함한 164점의 고려대장경 관련 유물들이 선보인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은 "초조대장경 천년을 기념해 많은 사람들이 대장경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쉽게 소개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시 유물 가운데 <내전수합음소>는 난해한 한자의 자음과 자의 등에 주를 더한 것으로, 해인사 대장경판에도 남아 있지

않은 귀중한 경판이다. 유물은 대장경 계보와 음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신찬일체경원품차록>은 경전들을 소개한 일종의 목록집으로 30권으로 구성돼 초조대장경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재조대장경을 판각할 때 교정 작업의 책임자였던 수기 스님은 이 책이 대장경을 열람하는 사람에게 이익 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해 30권의 <고려국신조대장경정별목>으로 대체했다.

흥선 스님은 "두 유물은 완벽한 대장경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였던 수기 스님의 교정 작업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라고 설명했다.

전시에서는 대장경에 대한 연구 주석서를 모으고 간행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활동과 교장(敎藏) 간행사업을 재조명했다. 의천 스님은 신라 고승의 저술 및 송, 요, 일본 등에서 경전 내용을 해석하고 연구한 장소(章疏)를 수집·간행했다.

흥선 스님은 "교장은 4000여 권의 방대한 양으로 간행됐다. 이는 경율론 상장에 교장을 더한 것으로 6000여 권 규모로 조성된 초조대장경과 비교하더라도 대장경



못지않은 중요한 경전 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시는 대장경의 분류체계인 천(天)·지(地)·현(玄)·황(黃)·우(宇)를 따라 기획됐다.

'천-말씀을 담은 그릇, 대장경'에서는 대장경의 개요와 초조대장경 조성 이전까지를 정리해 소개한다. '지-고려에서 대장경을 처음 새기다, 초조대장경'에서는 전소돼 실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초조대장경이 일본 남산사 등에서 인출본이 발견돼 세상에 사실로 자리매김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준다. '현-대각국사 의천스님과 교장'에서는 일본 학자들

의천 스님의 교장을 소개한다. '황-우리 손으로 승화 재해석하다, 재조대장경'에서는 몽고의 침입으로 소실된 후 두 번째로 만들어진 재조대장경을 집중 조명했다. '우-고려대장경의 전승과 발전'에서는 조선시대의 송유역불 속에서 간경도감과 사찰에서 편찬돼 온 경전을 조명했다.

흥선 스님은 "친절한 전시가 되기 위해 영상물 등 시청각 자료를 늘렸고 IT기기를 이용한 검색 기능을 전시에 적용했다. 전시에는 대장경뿐만 아니라 경상 등 대장경 관련 유물들을 한자리에 모았다"고 말했다. (02)2011-1965

조동섭 기자

그림으로 그려진 사후세계



지옥을 다스리는 제1진광대왕(왼쪽), 제8명등대왕(오른쪽)

국박, '명부전의 불화' 전 개막

불교에서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지장보살과 시왕 등을 그린 작품 20여 점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9월 6일 '명부전(冥府殿)의 불화'를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했다. 명부전은 불교의 사후세계를 구현한 전각이다. 명부전의 주인공은 지옥에서의 구제를 담당하는 지장보살과 지옥에서 죽은 자를 심판하는 10명의 왕, 즉 시왕이다. 서화관 불교회화실의 유물을 전면 교체해 진행되는 전시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지장보살과 시왕을 그린 불화를 중심으로 불교의 사후세계를 보여주는 각종 불화들을 소개했다.

전시는 명부전의 최고 존격인 지장보살로 시작한다. '지장보살과 지옥의 왕들'은 화면 가운데의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지옥을 다스리는 시왕이 양쪽에 시립한 구도로, 밝은 채색과 꽃문양 등이 조선 전기 불화의 여운을 보여준다.

'직부사자直符使者'와 '감재사자監齋使者'는 사람이 죽었을 때 지옥에서 파견되어 죽은 자를 감시하고 그에 대한 기록을 지옥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저승사자들을 그린 작품이다.

'지옥을 다스리는 현왕(現王)'은 본래 지옥의 왕들 중 5번째인 열라대왕이지만 지옥에서 보다 빨리 죽은 자를 구제하는 능력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신앙됐던 현왕의 모습을 보여 준다.

'지옥을 다스리는 시왕(十王)' 9점은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 전시실에서 가장 넓은 벽을 차지하며 일렬로 전시돼 있다. 강렬한 채색, 일관된 구성이 압도적인 느낌을 주는 이 일련의 시왕 그림들은 북한산 태고사(太古寺)에 있었던 작품으로 전해진다. 처음에는 지옥을 다스리는 10

명의 왕을 한 쪽에 한 명씩 그려 총 10폭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지만, 제5 열라대왕 1폭이 소실돼 9폭으로 전한다.

시왕은 사람이 죽은 후 7일마다 한 차례씩 심판을 하여 49일까지 7명의 왕이 심판하고, 그 후 100일, 1년, 3년이 되는 날 제8·9·10왕이 심판한다. 이 심판일마다 재를 올리면 죽은 사람이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 중요한 예배 대상이었다. 그림 하단에는 죄를 지은 자들이 지옥에서 갖가지 벌을 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 종교로서 교화적인 의미도 크다.

이 같은 불교의식에서 사용되는 불화 '칠여래도(七如來圖)'의 일부인 '광박신여래(廣博身如來)' '감로왕여래(甘露王如來)' 전시된 곳을 지나면, 국박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다. '극락으로 가는 배'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극락으로 데려다 주는 반야용선(般若龍船)을 그린 그림이다. 배에는 죽은 이들이 나란히 타고 있고, 사람마다 '비구(比丘尼)' '비구니(比丘尼)' '처사(處士)' '보사녀(補寺女)' 등이 기재돼 있다. 지옥에서 구제하는 지장보살과 극락을 주재하는 아미타불이 용선에 함께 타고 있어 이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극락에 갈 것임을 확신시켜 주려는 뜻이다. 이어서 전시된 '무위사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불화'가 보여주듯, 반야용선을 타고 떠난 여정의 마지막은 아미타불이 주재하는 극락의 세계이다. 이 아미타삼존불화는 전남 강진에 있는 무위사 극락보전 후불벽에 그려진 벽화로써 1938년 그려진 모사도이다. 실물은 국보 제313호로 지정돼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김영나 관장은 "이번 전시는 명부전에 봉안된 불화들을 통해 불교적인 사후세계관을 이해하고,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했던 옛 사람들의 소망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般圓僧이 정성껏 사경한 반야심경사경 작품 보급



般圓僧이 정성껏 사경한 반야심경사경 작품의 보시기는 불자님들께서 자율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般圓僧 010-3599-6653

금산선원 : 부산시 사상구 감전 1동 122-39

般圓僧은 정진기도를 하면서 반야심경 사경을 하였습니다. 통도사 문수원에 주석하시는 수안 큰스님 은사로 모시고 반야심경에 대한 지도 아래 하루도 빠짐없이 20여년을 반야심경사경 참선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야심경 사경기도는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정토에 이르시라고 하시부터 참선으로 사경을 하며 백중날 회향하고 또 불자님을 위하여 원상을 그리고 육바라밀을 마음에 담아 사경을 하여 인연 있는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행복하고 소원성취 하라고 20여년을 보시해 왔습니다.

원상을 그리는 것은 하나요, 우주 전체입니다. 경을 육각으로 쓴 것은 육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모든 가운데 육각에서 생기게 됩니다. 반야심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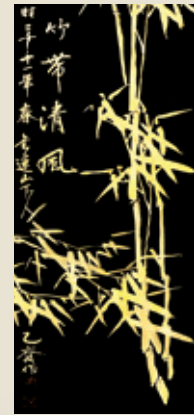
15년간 뇌종양 투병 생활 속에 고통을 참으며 반야심경참선 기도를 하였습니다. 2001년 9월 말일(부처님의 가피력으로 9년간 사경 참선 공덕으로)그날 밤에도 자시에 사경 후 머리에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광 하기에 이제야 육신을 버리는구나 하고 저 무거운 육신을 더 짊어지고 다닐 필요 없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구름을 타고 저 세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야심경 주신분이 나타나 할 일이 남아 있으니 갈 수 없다며 25년 생명 연장이라 하면서 죽비로 이마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이마는 땀 풀러 버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 병은 간곳없고 맑은 정신으로 지금 般圓僧은 새 생명으로 반야심경 사경에 혼을 담아 수행정진 하고 있습니다. 般圓僧은 생을 다하는 날까지 사경 참선으로 일체 중생을 위하여 기도 할 것입니다.

이 특별한 경을 소지하게 되시면 한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을 소장하고 보시하시는 분은 향후 불사를 할 경우 반드시 건립비에 이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般圓僧 합장



·작품명 : 새우
·사이즈 : 가로 30cm x 세로 45cm
·재질 : 한지 금분
·작품가 : 7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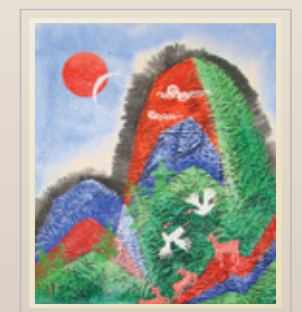
·작품명 : 竹
·사이즈 : 가로 22.5cm x 세로 59cm
·재질 : 한지 금분
·작품가 : 100,000원



·작품명 : 달마
·사이즈 : 가로 30cm x 세로 45cm
·재질 : 한지 먹
·작품가 : 50,000원



·작품명 : 연꽃달마
·사이즈 : 가로 30cm x 세로 45cm
·재질 : 한지 먹
·작품가 : 50,000원



·작품명 : 심장생
·사이즈 : 가로 30cm x 세로 45cm
·재질 : 한지 석채 혼합
·작품가 : 300,000원

위 작품은 불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올레 서명한 선생님께서 기증하는 작품입니다. 아래 작품을 소장하시어도 불사에 크나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올레 선생님의 작품세계는 홈페이지 www.sycart.co.kr 에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